

책의 무덤 전시

책의 무덤 전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해 온 동명의 드로잉시리즈 ‘책의 무덤’과 맥을 같이한다. 사실 전시의 가제목은 ‘우주난장판’이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드로잉시리즈의 제목들은 ‘육식의 시간’, ‘책의 유령들’, ‘난파선G’ 였다. 이전부터 다루고 있던 주제를 좀 더 가볍게 희화화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적당히 터무니없는 이름을 고르던 중 나온 제목이다. 전시를 구성하는 작업들이 진행될수록, 결정적으로 9.5미터의 벽화작업인 ‘서사의 의무’가 구상되면서 ‘우주난장판’이라는 제목은 사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들의 이미지가 명확해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추상화되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만들어냈다. 너무 거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쪼개고 쪼개며 이야기한다. 평등, 정의, 질서라는 보편적인 진리는 왜 나에게 추상적일까? 인간은 오랜 생각과 반성으로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도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나의 작업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질문들을 다루는 거리, 태도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가 변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된다.

그림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미지보다 감정이 먼저 읽히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초반 작업들은 다양한 색상과 동적인 구성으로 거대한 이야기를 가볍고 유쾌하게 담아내려고 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뤄지는 정적인 구성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다. 전시 마무리쯤 지향했던 것은 동적이면서도 정적인 구성이었다. 그것에 해당되는 작업으로 ‘서사의 의무’와 ‘부유하는 그림자들’이 있다.

띠를 그리며 순환하는 거대한 유성, 부유하고 있는 시간의 잔재들. ‘서사의 의무’는 전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구상하게 되었다. 9.5미터의 그림은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육체적인 시간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의 무덤’ 전시를 준비할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하고자 했다. 그림처럼 완결된 이야기와 시각적 완성도를 생각하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나의 서사적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어떤 이는 서사의 역할이란 잊혀져가는 시간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허상을 바라보는 허상들, 부유하고 있는 의미를 잃어 버린 것들, 멀어져가는 단어들, ‘책의 무덤’ 전시는 잊혀져가는 위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